

## 청소년 자살시도 관련 변인이 자살시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

이승진\* · 유난숙\*\*†

\*세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

### Effect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Attempt on the Types of Youth Suicide Attempt

Lee, Seung Jin\* · Yu, Nan Sook\*\*†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h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the pattern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nd to explore the effects of personal psychology (subjective depression, subjective stress), health status (BMI,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nd subjective academic performance on the types of youth suicide attempts. For this research, data of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were analyzed employing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ut of 1,731 youth suicide attempts 156 (9%) were impulsive and 1,575 (91%) were planned. Girls(67.3%) attempted suicide more than boys (32.5%), and middle school students (62%) attempted suicide more than high school students (38%). Second,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suicide attempt types were subjective depression, subjective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grade level, school type, and SES. The rate of planned suicide attempts was higher among those who experienced depression than among those who did not. In the case of subjective stress, adolescents who felt stressed were likely to commit planned suicide attempts. Those who attempted impulsive suicide showed 1.32 times higher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scores than those who attempted planned suicide, indicating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y were not healthy were more likely to attempt planned suicide. BMI and subjective academic performa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ypes of youth suicide attempts. These findings suggested the necessity of systematic intervention in Home Economics classes or extra-curricular programs, to prevent potential youth suicide attempts.

Key words: planned suicide attempt(계획적 자살시도), youth suicide risk(자살위험), KYRBS(청소년건강행태조사), youth suicide attempt type(청소년 자살시도 유형), impulsive suicide attempt(충동적 자살시도)

---

† 교신저자: Yu, Nan Sook,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Tel: +82-2-3290-2320, E-mail: starwell@korea.ac.kr

이 논문은 2020년도 세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OECD 평균 11.3명에 비해, 한국은 24.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의 사망 원인 1위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지난 5년 동안(2014~2018) 청소년(9~24세) 자살률 연평균이 5.2% 증가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MOHW & SPC Korea], 2020). 자살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경우 심각한 우울증을 겪거나 더 나아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Kim, 2012). 따라서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여기지 않는 한국사회 특성에서 특히 10대 자녀의 자살은 가족붕괴라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Kim, 2015).

청소년기 자살은 시도유예에 비해 성공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움을 표출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Oh, 2006). 자살의 정의를 자살로 인한 사망원료 상태로 한정하여 본다면, 자살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자살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살위험에 놓인 청소년들의 자살관련 사고나 행위과정과 관련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잠재적 자살시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와 학교는 자살시도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조기에 자살위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Kim & Lee, 2003).

청소년 시기는 또래집단의 영향에 민감한 시기로, 친구의 자살은 그들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자살생각을 한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약 11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청소년기에 해결하지 못한 심리 및 정서적 갈등이 이후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hin & Kim, 2013).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청소년 자살 예방 개입의 효과성 및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따르면, 가정교과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자살을 다루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가정교과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돕는 실천교과이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및 또래관계 내용을 자살 예방 내용과 통합하여 수업 내에 실행된다면 청소년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가정과수업을 통한 자살예방 개입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살위험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된다. 자살생각은 죽고 싶은 생각이나 바라는 마음, 자살계획은 자살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자살생각에 포함할 수 있다. 자살시도는 완성된 자살 즉 사망원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요인이다 (Shin & Lee, 2016).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살계획에 이어져 자살시도로 발전할 수 있다(Cho & Lee, 2010; Shin, Chung, Lee, Lee, Park, 2014). 반면,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이나 계획없이 바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Lee(2013)는 청소년의 충동성은 청소년들의 자살 사고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시도는 자살생각 또는 계획을 경험한 경우(계획적 자살시도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충동적 자살시도자)를 구분하여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자살관련 연구들은 일련의 자살시도 유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 각 자살위험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Son(2019)과 Yeom(2018)은 BMI를 분석하였고, Choi(2011), Lee(2014), Park과 Moon(2010)은 주관적 건강인식, Son(2019), Song(2020), Yeom(2018)은 스트레스, Yeom(2018)은 학업성적, Chun과 Lee(2000), Kim과 Cho(2019)는 우울감, Yeom(2018)은 학교유형 및 성별 등이 자살위험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 중에서 계획적 자살시도자와 충동적 자살시도자를 구분하여 관련변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시도자를 충동적 자살시도자와 계

획적 자살시도자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양상을 알아보고, 개인심리(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식, BMI), 주관적 학업성적 등이 청소년 자살시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가정교과에서 자살위험에 대한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개인심리(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식, BMI), 주관적 학업성적 등이 청소년 자살시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연관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자살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행위이고(Kang, Lee, & Lee, 2015), 자살생각은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자해행위이다(Bae, 2004). 자살생각이 항상 자살계획으로 구체화되거나 자살시도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은 자살시도나 자살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Lee & Chang, 2012).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생하게 되므로, 청소년 자살 또한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Park, 2006). 평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27%가 자살계획을 갖고 있으며, 자살계획자 중 42%

는 실제로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Shin, Yu, & Kim, 2011). 청소년들 또한 자살계획이 자살시도의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에(Shin et al., 2014) 자살계획은 자살시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rlson과 Cantwell(1982)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율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의 42%와 경미하게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34%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자살생각이 없는 경우 거의 자살시도를 하지 않았다(as cited in Park & Moon, 2010, p. 106)

Choi, Ryou, Kim, Choi와 Hahm(2020)은 자살위험성에 대한 유형화를 하기 위하여 자살위험의 하위유형을 좀더 면밀하게 구분하였다. 즉, 자살생각에는 ‘죽고 싶은 소망’, ‘비특이적 적극적 자살생각’, ‘실행의도가 없는 적극적 자살생각’, ‘어느 정도 실행의도가 있는 적극적 자살생각’,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가 있는 적극적 자살생각’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살행동 경험은 ‘자살준비행동’, ‘방해된 자살시도’, ‘실제적 자살시도’, ‘중단된 자살시도’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자해행동’은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과 구분하였다. 청소년 자살위험의 4가지 하위유형을 확인한 결과, 낮은 자살위험형 75.7%으로 제일 많았고, 자살생각 및 시도형 5.7%, 자살생각형 12.1%, 자살시도 및 자해행동형 6.5% 순으로 나타났다.

Kim(2015)은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살시도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종속변인은 자살시도, 독립변인은 폭력경험, 스트레스, 우울, 자살계획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과 자살시도와의 관계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을 느낄수록, 자살계획이 있을수록 자살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Kim(2018)은 성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관련된 유발요인으로 개인심리변인, 개인 및 사회환경변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적 건강상태, 부부폭력, 성역할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 문제음주는 자살계획에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문제음주, 부부폭력은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쳤다.

## 2. 청소년 자살의 특징

청소년기는 신체적·인지적 발달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자기조절 능력이나 외부사건들에 대한 대처전략들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컫는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Bae & Kim, 2011).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자살은 현실세계를 벗어나려는 환상 속에서 자살이 발생하는 등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청소년 자살은 충동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시기에 자살시도율이 높는데,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계획적으로 시도하기보다 충동적인 감정에 이끌려 자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시도율은 높지만 치명적인 자살률은 성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Oh, 2006)

둘째, 청소년 자살은 자살시도율에 비해 자살 성공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 이와 같이 자살시도가 많은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다(Oh, 2006). 또는 자신들의 독립 선언이고 자기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Kim & Lee, 2003).

셋째, 청소년 자살은 평상시 유대관계를 깊게 갖고 있었던 대상, 또래와 동반자살을 시도한다. 즉,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신의 내적인 자살 동기보다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자신과 유사한 자살 동기를 가진 또래를 찾는다. 정보화 세대인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 자살 사이트 등을 통해 동반 자살을 감행하거나 모방 연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성인들보다 많다(Kim, 2015; Oh, 2006).

이와 같이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충동적이고, 자살시도율이 성공률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주변 환경이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청소년 자살이 성인 자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방하기 쉽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살계획과 자살의도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자살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 많은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Oh, 2006).

## 3. 청소년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

Oh(2006)은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태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살 행동에 대해 더 금기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일반적 행동으로서 자살 생각의 가능성’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이 일반적 행동이라는 사실에 더 찬성하는 의견을 표하여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이 가능하다는 태도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자살완료, 즉 자살률과도 일치한다. 2020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률은 남자(10.0명)가 여자(8.1명)보다 1.2배 높다(MOHW & SPC Korea, 2020). Choi 외(2020)는 ‘낮은 자살위험형’에 비해 ‘자살생각만 있거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등을 모두 경험한 집단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Park, Yang과 Park(2018)은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감을 지닌 중학생은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며, 충동성이 강할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자살생각 평균이 고등학생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중고등학생간의 충동성의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한 결과 중학생집단의 충동성 평균이 고등학생 충동성 평균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으나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우울한 중학생의 충동성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우울한 고등학생의 충동성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Son(2019)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우울감이며, 약물경험, 폭력경험, 스트레스, 친척집 거주, 음주경험, 주관적 건강인지, 연령, 경제상태, 흡연, 비만도, 인터넷 사용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우울감이며, 그 다음은 폭력 경험, 스트레스, 친척집 거주, 약물경험, 성경험, 음주경험, 주관적 건강인지, 흡연경험, 수면만족도, 연령, 인터넷 사용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할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과제중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다. 남학생의 경우 주관적 건강인지가 좋을수록 자살생각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BMI는 영향이 없었다.

Yeom(201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저체중인 경우 2.6%, 정상체중 2.3%, 과체중 2.5%, 비만 2.3%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체질량지수에 따른 자살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의 경우, ‘상’인 학생의 2.2%, ‘중’인 학생의 2.5%, ‘하’인 학생의 5.0%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에 따른 자살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Lee(2012)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자살생각 유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세 집단 간 자살생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두 학교급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Shin 외(2014)는 고등학생의 자살을 네 가지 차원(우울, 자살, 자살계획, 자살시도)별로 개인, 가족, 학교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통적인지, 차별적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자살의 네 가지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차별적 요인이 있었으며, 네 가지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통적 요인들은 위축, 비행경험이었고, 세 가지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공통적 요인들은 학업스트레스, 성추행피해경험, 자아존중감이었다. 각 자살단계들은 이전 자살단계의 영향을 받았다. 개인요인은 자아존중감, 위축, 공격성, 성추행피해경험, 비행경험이며, 가족요인은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도감독 정도 등이고, 학교요인은 학업스트레스 척도가 포함되었다.

Chung, Ahn과 Kim(2003)은 개인적 특성(학교성적과 음주 여부), 가정관련요인(가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서적지지), 심리환경적 요인(가출충동, 우울성향, 학교 스트레스) 등이 자살충동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며, 이 시기에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존감, 섭식장애, 우울감 등에 영향을 미치며 (Lee, Lee, & Kim, 2012), 자살생각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Kim, 2008)하기도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The 15<sup>th</sup>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9,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는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학교유형, 학년, 성별,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학업성적, 주관적 경제상태, 체질량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적 표본을 제공한다. 총 표본대상 57,303명 중에서 자살시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1,731명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자살시도 유형이며, 자살시도 유형은 계획적 자살시도자와 충동적 자살시도자로 구성된다. 계획적 자살시도자는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계획을 세운 후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이다. 충동적 자살시도자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생각 또는 자살계획 없이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이다.

##### 나. 독립변인

##### 1)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인식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매우 건강한 편이다(5),’ ‘건강한 편이다(4),’ ‘보통이다(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2),’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1)’ 중 하나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우울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의 유무로 측정되는 이항변인으로, 경험이 있을 경우 ‘1’,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3) 주관적 스트레스

주관적 스트레스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5),’ ‘많이 느낀다(4),’ ‘조금 느낀다(3),’ ‘별로 느끼지 않는다(2),’ ‘전혀 느끼지 않는다(1)’ 중 하나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4) 주관적 학업성적

주관적 학업성적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자는 최근 12개월 동안의 학업성적에 대해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 ‘상(5),’ ‘중상(4),’ ‘중(3),’ ‘중하(2),’ ‘하(1)’ 중 하나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적을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5) BMI

체질량지수는 자신의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sup>2</sup>)으로 나눈 값으로 40이상은 고도비만, 35-38.9 구간에 있는 경우 중등도 비만, 30-34.9 구간의 경우는 경도 비만, 25-29.9 구간에 있는 경우 과체중, 18.5-22.9 구간의 경우 정상, 18.5 미만의 경우 저체중으로 간주된다.

다.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학년, 학교유형(중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 주관적 경제상태(SES)를 사용하였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섯 개 학년으로 구성되며, 학교유형은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상(5),’ ‘중상(4),’ ‘중(3),’ ‘중하(2),’ ‘하(1)’ 중 하나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자살 시도 유형(충동적 자살시도자와 계획적 자살시도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개인심리 관련 변수, 건강상태 관련 변수, 주관적 학업성적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학년, 학교유형, 주관적 경제상태(SES)로 구성되며 ‘개인심리 관련 변수’는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로 구성되고, ‘건강상태 관련 변수’는 주관적 건강인식과 체질량지수(BMI)로 사용되었다.

둘째, 청소년들의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 BMI, 주관적 학업성적이 청소년 자살 시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된 이항변인으로는 자살 시도 유형(중속변인), 주관적 우울감(독립변인), 성별, 학교유형(통제변인) 등 4가지이다. 중속변인 ‘자살 시도 유형’은 ‘충동적 자살 시도자(1)’와 ‘계획적 자살 시도자(0)’로 계획적 자살 시도자가 참조집단으로 처리되었다. 독립변인 주관적 우울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청소년’을 ‘1’로,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지 않은 청소년’을 ‘0’으로 지정하여 참조집단으로 처리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1), 여학생(0)으로 처리하여 여학생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고, 학교유형의 경우 고등학교(1), 중학교(0)으로 처리하여 중학생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두 개의 내재모형(nested models)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 ‘성별,’ ‘학교유형,’ ‘학년,’ ‘주관적 경제상태’와 중속변인 ‘청소년의 자살 시도 유형’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투입된 변수 이외에 독립변수인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학업성적,’ ‘BMI’가 추가 투입되었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첫째, 위계적으로 내재된 모형 1과 2(nested models)의 적합도 비교분석을 위해 카이자

승 차이검증( $\chi^2$  difference test)을 수행하였다. 둘째, 모형 2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이 외생변수인 통제변인들을 통제한 후에 종속변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도(2Log)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2에서 독립변수인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학업성적, BMI가 자살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 IV. 연구결과

##### 1.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양상

###### 가.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자살시도자 1,731명 중 충동적 자살시도를 한 청소년은 156명(9%), 계획적 자살시도 청소년은 1,575명(91%)으로, 계획적 자살시도 청소년 수가 충동적 자살시도 청소년 수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1,165명, 남학생이 566명으로 여학생의 자살시도자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충동적 및 계획적 자살시도 모두에서 여학생이 65.4%와 67.5%로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를 보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6개 학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1,073명으로 고등학생 625명에 비해 자살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 학생이 238명, 중학생의 경우 3학년 학생이 411명으로 가장 많은 자살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적 자살시도와 계획적 자살시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은 각 27명, 211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2학년의 경우 각 8명과 209명, 3학년의 경우 각 5명과 19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충동적 자살시도는 2학년 학생이 49명, 계획적 자살시도는 3학년 학생이 38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시도를 보였다.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일반계고 학생의 경우 484명으로 특성화고 학생 161명과 비교하여 높은 자살시도를 나타냈고 충

동적 자살시도와 계획적 자살시도에 있어서도 일반계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제상태(상, 중상, 중, 중하, 하)에 있어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76명으로, 다른 경제적 상태를 응답한 학생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자살시도를 보였으며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가 143명으로 가장 낮은 자살시도를 나타냈다.

###### 나. 청소년 자살시도자와 관련된 주요 변수의 특징

<Table 2>에서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자살시도자 중 79% 정도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낄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스트레스도 5점 중 4.19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 *n*(%)

Variables	Suicide attempt types			
	Impulsive	Planned	Sum(%)	
Gender	Male	54(9.5)	512(90.5)	566(100)
	Female	102(8.8)	1,063(91.2)	1,165(100)
	Sum(%)	156(9.0)	1,575(91.0)	1,731(100)
Grade	(M) 1st	43(14.1)	263(86.0)	306(100)
	(M) 2nd	49(13.7)	307(86.2)	356(100)
	(M) 3rd	24(5.8)	387(94.2)	411(100)
	(H) 1st	27(11.3)	211(88.7)	238(100)
	(H) 2nd	8(3.7)	209(96.3)	217(100)
	(H) 3rd	5(2.5)	198(97.5)	203(100)
Sum(%)	156(19.0)	1,575(91.0)	1,731(100)	
School type	M	116(10.8)	957(89.1)	1,073(100)
	VH	12(7.4)	149(92.5)	161(100)
	GH	27(5.6)	457(94.4)	484(100)
	Sum(%)	155(9.0)	1,563(91.0)	1,718(100)
SES	Lower	8(5.6)	135(94.4)	143(100)
	Middle-lower	30(8.9)	307(91.1)	337(100)
	Middle	70(10.4)	606(89.6)	676(100)
	Middle-upper	33(8.9)	339(91.1)	372(100)
	Upper	15(7.4)	188(92.6)	203(100)
	Sum(%)	156(9.0)	1,575(91.0)	1,731(100)

Note. M, middle school; H, high school; GH, general high school; VH, vocational high school

Table 2. Descriptive results for variables on suicide attempt

Category	Variable	Suicide attempt					
		Impulsive		Planned		Total	
		M	SD	M	SD	M	SD
Personal psychology	Subjective depression	.50	.50	.82	.38	.79	.41
	Subjective stress	3.83	.87	4.22	.93	4.19	.94
Health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3.76	.90	3.34	1.07	3.38	1.06
	BMI	20.59	2.71	21.44	3.52	21.36	3.47
	Subjective academic performance	2.88	1.10	2.77	1.30	2.78	1.28

시도자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5점 중 3.38점으로 ‘보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체질량지수(BMI)는 21.36으로 정상 구간 18.5-22.9에 포함되어 정상 체질량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적의 경우 5점에서 2.78점으로 대부분 응답자는 자신의 성적을 ‘중하’ 정도로 생각하였다.

충동적 자살시도자와 계획적 자살시도자를 비교해보면, 계획적 자살시도자 중 82%가 충동적 자살시도자의 경우는 50%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나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상대적으로 더 우울하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4.22점(5점 만점), 충동적 자살시도자는 3.83점으로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충동적 자살시도자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충동적 자살시도자는 3.76점, 계획적 자살시도자는 3.52점으로 충동적 자살시도자가 계획적 자살시도자에 비해 건강하다고 인식했다. 체질량지수(BMI)의 경우 두 그룹 모두 정상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적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자신의 학업성적을 ‘보통이하’라고 인식했다.

2. 개인심리(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식, BMI), 주관적 학업성적이 청소년 자살시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

모형적합도 비교·분석을 위해 내재된 모형(nested models) 1과 2의 카이제곱 차이검증( $\chi^2$  difference test)을 수행했다. 모

형 1에서 카이제곱( $\chi^2$ ) 통계치는 36.76( $df=5$ ), 모형 2에서는 126.89( $df=10$ )로 카이제곱( $\chi^2$ ) 통계치 차이는 90.13( $df=5$ )으로 유의수준 .05에 해당하는 임계값(critical value) 15.09보다 크므로 모형 2가 모형 1보다 통계학적으로 적합하였다. Hosmer-Lemeshow  $\chi^2=837.74$  ( $p>.05$ ), Nagelkerke  $R^2=.17$ 로 연구모형이 충동적 자살시도자와 계획적 자살시도자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log 우도비 검정결과도 유의미하게( $p<.001$ ) 나타나,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에 투입된 외생변수들을 통제된 후에 독립변인들인 주관적 우울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학업성적, BMI가 청소년의 자살시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우울증이 있을 경우,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충동적 자살시도가 0.25배(승산비) 증가하였다. 이는 우울증 경험이 있을 경우 없는 경우보다, 계획적 자살시도에 비해 충동적 자살시도가 75%( $=0.25-1$ )\*100= -75%)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충동적 자살시도가 0.76배(승산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적 자살시도에 비해 충동적 자살시도가 34%( $=0.76-1$ )\*100= -34%)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주관적 건강인식의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충동적 자살시도가 1.33배(승산비) 증가하였다. 즉, 주관적 건강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계획적 자살시도에 비해 충동적 자살시도가 33%( $=1.33-1$ )\*100=33%) 증가한다. 이는 우울증 경험이 있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계획적 자살시도에 비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sociation of influences of variables on suicide attempt type

Category	Variable	Suicide attempt type					
		Model 1			Model 2		
		$\beta$	Exp( $\beta$ )	<i>p</i>	$\beta$	Exp( $\beta$ )	<i>p</i>
Constant		-0.92	0.40	<.05	1.06	2.89	.25
Demographics	Gender	-0.23	0.79	.22	-0.11	0.89	.59
	VH	1.01	2.74	<.05	0.95	2.59	<.05
	GH	0.89	2.43	<.05	0.90	2.45	<.05
	SES	0.03	1.03	.72	-0.08	0.92	.36
	Grade	-0.55	0.56	<.05	-0.48	0.62	<.05
Personal psychology	Subjective depression	-	-	-	-1.39	0.25	<.05
	Subjective stress	-	-	-	-0.28	0.76	<.05
Health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	-	-	0.28	1.33	<.05
	BMI	-	-	-	-0.04	0.96	.14
Subjective academic performance		-	-	-	0.02	1.02	.78
$\chi^2$		36.76			126.89		
<i>df</i>		5			10		
-2log		126.89 ( <i>p</i> <.05)			837.74 ( <i>p</i> <.05)		

Note. GH, general high school; VH, vocational high school

Reference group: Suicide attempt type=Impulsive suicide attempt, gender=male, GH and VH=middle school, Depression=group experiencing depression.

해 충동적 자살시도가 감소하고,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계획적 자살시도에 비해 충동적 자살시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학업성적과 BMI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충동적 자살시도율이 2.34배(승산비) 높아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충동적 자살이 계획적 자살시도에 비해 134%((2.34-1)\*100)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충동적 자살시도율이 2.59배(승산비) 높다. 따라서 중학생에 비해 특성화고 고등학생의 충동적 자살시도율은 계획적 자살시도에 비해 159%((2.59-1)\*100) 높게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학년이 하나 올라갈수록 충동적 자살시도가 0.62배(승산비) 높아져 계획적 자살시도에 비해 충동적 자살 시도율이 38%((0.62-1)\*100=-38%) 감소하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 목적은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양상을 알아보고, 개인심리(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식, BMI), 주관적 학업성적 등이 청소년 자살시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자살시도자 1,731명 중 충동적 자살시도자(9%)보다 계획적 자살시도자(91%)가 월등히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자살시도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자살생각 또는 자살계획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과 Moon(2010)은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시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살시도로 발전하기 전에 자살생각을 하는 시점에 청소년 자살 예방프로그램을 투입하면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교과에서 자살 예방프로그램

램을 투입할 때 조사연구를 하여 자살위험의 유형 중 심각한 자살시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자살생각 사례에도 선제적으로 개입프로그램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살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더 많이 나온 선행연구(Chun & Lee, 2000; Kim, 2002)와 일치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 학생이 238명, 중학생의 경우 3학년이 411명으로 가장 많은 자살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살과 17살 사이에 자살시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충동적 자살시도자 중에서 중학교 2학년이 49명, 계획적 자살시도자 중에서 중학교 3학년이 38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시도를 보였다. 중학교 2, 3학년 시기는 사춘기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와 일치하는데, 이는 사춘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뇌 구조의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에 기인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행동패턴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ark & Kim, 2011). 2015개정 기술·가정교육과정의 가정생활분야에서 자살과 관련된 내용요소는 ‘청소년기 생활 문제와 예방’이며, 이 내용은 기술·가정교과서 1권에 편성되어 있어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대체로 중학교 저학년 수업시간에 다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학교 고학년까지 확대되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살시도자 중 80% 정도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낄 정도의 우울감을 나타냈고 주관적 스트레스도 5점 만점 중 4.19점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적의 경우 5점에서 2.78점으로 대부분 응답자는 자신의 성적을 ‘중하’ 정도로 생각하였다. 계획적 자살시도자 중 82%, 충동적 자살시도자 중 50%가 우울하다고 응답하여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상대적으로 더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5점에서 4.22점, 충동적 자살시도자가 3.83점으로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충동적 자살시도자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식, BMI), 주관적 학업성적 등이 청소년 자

살시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자살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이었다.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계획적 자살시도를 실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의 경우 충동적 자살시도자가 계획적 자살시도자와 비교하여 1.32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동적 자살시도자에 비해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개인심리 및 주관적 건강인식에 취약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한 개입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BMI, 주관적 학업성적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시도자 중에서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충동적 자살시도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즉, 청소년들이 즉흥적인 자살시도보다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생각 및 자살계획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살생각 또는 계획을 세우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진단, 발견하여 자살시도로 이행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편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자살실태 조사,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과 홍보 등으로 자살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0)」 제7조에 의거),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법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청소년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지역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특히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와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하여 충동적 자살시도자에 비해 계획적 자살

시도자가 주관적 우울감과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고,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자살시도자 중에도 충동적 자살시도자와 계획적 자살시도자를 구분하여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계획적 자살시도자는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므로, 주변에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많은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개인상담, 가족상담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리해 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편, 충동적 자살시도자는 평소에 자살생각 및 계획을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으로, 위기관리능력과 감정관리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2015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안전의 성취기준 해설 중에서 “[9기]02-07]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중독(흡연, 음주, 약물 등), 자살 등의 발생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 및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19).’와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핵심개념 중 ‘안전’ 관련 가정과수업을 계획할 때 자살생각, 자살계획 여부를 진단하는 입체적인 개입방안의 필요성을 제공하여 청소년 자살시도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시도자 중에서 충동적 자살시도자와 계획적 자살시도자를 구분하여 관련변인을 연구함으로써 다각적인 개입방안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반해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부모, 학교, 또래 등)을 자살시도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이용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는 환경적 요인 관련 변인이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모형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관련 문항 개발을 통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확대·제공한다면 청소년 자살시도 예방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에서 자살위험의 세 가지 유형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는 각각 한 문항으로 구성·측정되어 각 유형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자살위험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각 유형별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Bae, J. Y. (2004). Case study about elderly suicid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3, 65-82.
- Bae, J. M., & Kim, E. Y.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adolescents for friend's suicidal comple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2), 189-208.
- Cho, Y. S., & Lee, K. L.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on suicidal ide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8), 27-37.
- Choi, J., Ryou, B., Kim, K., Choi, Y., & Hahn, H. C. (2020). Latent sub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icidality in South Korean you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1(2), 57-96.
- Choi, Y. (2011). *Self-awareness, life style, and suicide-related factors of adolescents: Based on the 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09)*.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angwon, Korea.
- Chun, Y. J., & Lee, S. H. (2000).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7(1), 221-246.
- Chung, H. K., Ahn, O. H., & Kim, K. H. (2003). Prediction factors affecting youth's suicide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 107-126.
- Kang, J. H., Lee, K.-M., & Lee, H. K. (2015). A study on overcoming of the suicidal id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3), 103-134.
- Kim, D.-S. (2008). *Gender differences in body image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S. (200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mily dynamic environment and suicidal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s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2), 231-242.
- Kim, J. (201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youth's attempt to suicid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Children's Light*, 110, 119-156.
- Kim, J., & Kim K. (2018). Analysis on influence of triggering variables related the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 and

- suicidal attempt: Focused on participants in 6th KoWeP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2), 344-360.
- Kim, K. D. (2012). Experiences of parents as suicide surviv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4), 5-29.
- Kim, M. K., & Cho, K. W. (2019). Factors affecting health risk behaviors,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s and suicidal attempts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36(3), 61-71.
- Kim, Y.-B., & Lee, J. S. (2003). An analysis of suicide concep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2(4), 394-401.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0). Act to prevent suicide and foster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 sNm=%EC%9E%90%EC%82%B4%EC%98%88%EB%B0%A9+%EB%B0%8F+%EC%83%9D%EB%AA%85%EC%A1%B4%EC%A4%91%EB%AC%B8%ED%99%94+%EC%A1%B0%EC%84%B1%EC%9D%84+%EC%9C%84%ED%95%9C+%EB%B2%95%EB%A5%A0&joNo=&languageType=KO&paras=1#J11:0>.
- Lee, H. K., & Chang, C. G. (2012). The relation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elderly.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8(1), 69-79.
- Lee, J.-S.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mpulsivity, aspects of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3), 1-22.
- Lee, J. H. (2014). *Association between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c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alyses of 2012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Lee, J. M. (2012).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T.-Y., Shin, J.-H., Yu, M.-S., & Kim, K.-H. (2011). A study on suicidal behavior factor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6), 2636-2643.
- Lee, Y.-J., Lee, S.-J., & Kim, C.-G. (2012). Korean adolescents' weight control behaviors by BMI(Body Mass Index) and body shape perception: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from 201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3), 227-232.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Sejong: Autho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20). *2020 suicide prevention white book*. Sejong: Author.
- Oh, S. G. (2006).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suicidal attitudes, suicidal risk, and needs of life-esteem education participation*.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B.-K. (2006). Adolesc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0, 41-76.
- Park, J. H., & Kim, S. H. (2011).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 brain and behavior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7(1), 11-20.
- Park, J. S., & Moon, J. W. (2010).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Health and Social Studies*, 27, 105-130.
- Park, S.-Y., Yang, S., & Park, S.-Y. (2018). Path analysis of suicidal attempts among adolescents with suicidal thoughts: Comparison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3), 1-15.
- Shin, B.-K., & Lee, S.-J.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length of time that it took for elderly to do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 and suicidal attempt after retirement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43(2), 1-33.
- Shin, E. J., & Kim, H. S. (2013). Effects of a peer gatekeeper training program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suicide proba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2(3), 241-251.
- Shin, H. J., Chung, I.-J., Lee, S.-A., Lee, H. Y., & Park, J. Y. (2014).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s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ce. *Journal of*

- School Social Work*, 27, 25-50.
- Son, S. (201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juveniles: Using the 14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8*.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Song, J.-Y. (2020). *The effects of health behaviors and cognitive stress on suicidal thoughts i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ve sympt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eom, I.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co-occurrence of health risk behavior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Based on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from 2014, 2016, 2017*.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양상을 분석하고, 개인심리(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식, BMI), 주관적 학업성적이 청소년 자살시도 유형(계획적 자살시도자와 충동적 자살시도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자살시도자 1,731명중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1,575명(91%)으로 충동적 자살시도자 156명(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67.3%)이 남성(32.5%)에 비해 자살시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 보면 중학생(62%)이 고등학생(38%)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였다. 둘째, 자살시도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주관적 우울감’, ‘주관적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이었다.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계획적 자살시도를 실행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계획적 자살시도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의 경우 충동적 자살시도자가 계획적 자살시도자와 비교하여 1.32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계획적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BMI, 주관적 학업성적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정과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잠재적 청소년 자살시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12월 31일